

바삭 촉촉...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 본 튀김 맛의 비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튀김의 발견

임두원 지음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 본 튀김의 세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언가를 튀긴다는 행위는 마치 하나의 정밀한 과학 실험과도 같으니까요. 밀가루의 힘을 측정하고, 튀김옷의 단백질 함량을 조절하고, 사용되는 기름의 발연점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 기름의 산화 여부도 체크하고, 조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물성의 변화를 관찰해야 하지요. 어느 한 부분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튀김의 품질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본문 중에서)

‘바삭’, ‘고소’, ‘촉촉’... 어떤 음식과 연관된 촉감일까? 재료에 ‘웃을 입혀’ 끓는 기름에 넣으면 완성된다. 요즘에는 ‘겉바속촉’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렇다. 튀김

이다.

‘인류는 튀김을 사랑한 덕분에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그리고 튀김은 왜 맛있으며 우리는 왜 튀김을 원하는 것일까.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임두원 박사는 저서 ‘튀김의 발견’에서 우리가 튀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한다. 처갓집이 오랫동안 돈카츠 전문점을 운영한 덕분에, 저자는 튀김을 비롯한 다양한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과학, 역사, 인문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튀김을 살펴보는 일은 요리의 즐거움뿐 아니라 삶의 행복과 추억까지 풍성히 느낄 수 있다.

셰프이자 음식칼럼니스트인 박찬일은 “요리 학교에서도 튀김이 왜 맛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 튀김은 맛있지만 그 배경 지식과 과학 원리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이 책은 그런 답답한 속을 뽐뽐해 준다. 고 평한다.

한마디로 책은 튀김을 향한 애정의 결과물이다. 튀김 맛의 비밀을 풀기 위해 물리학과 화학, 재료공학,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도구가 활용된다. 여기에 재료, 기름, 튀김옷 등 튀김의 요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맛깔스럽게 첨가된다.

저자는 식재료를 기름에 튀기면 지방 함량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소량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지방은 우리 몸속에



먹음직스러운 다양한 튀김들.

서 저장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몸 안에 저장해두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원시 인류는 지방을 탐했던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DNA에는 지방을 선호하는 원초적 본능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튀김이 주는 풍미는 무엇에서 연유할까. 고온에서 튀길 때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 때문이다. 마이야르 반응

으로 인해 생성되는 맛과 향 성분은 무려 1000여 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먹음직스럽게 갈색으로 변하거나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함을 주는 캐러멜화 반응도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튀김의 미학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세계인의 환과 혼이 담긴 ‘소울 푸드’로 거듭나게 된 것은 각국의 튀김 요리에 드리워진 역사와 무관치 않다.



일본의 대표 튀김 음식 돈카츠.

영국의 대표 요리 피시앤칩스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음식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고단함 외에도 15세기 스페인으로부터 종교박해를 받고 쫓겨난 유대인의 설움도 배어 있다. 영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먹었던 페스카도 프리토가 전역에 퍼지면서 피시앤칩스의 기원이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 탕수육은 19세기 제국주의로 인한 동아시아의 수난사와 관련이 있다. 1840

년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패하자 청나라에는 서양인들이 몰려왔다. 젓가락 사용에 익숙지 않은 이들은 포크로 째어 먹을 수 있는 고기 요리를 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뉴가 탕수육과 꺾바로우의 원형인 ‘꾸루로우’다. 이 이름은 “서양인들이 돼지 고기 튀김을 보고 침을 ‘꿀꺽’ 삼키는 모습을 묘사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부키·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

강신주 지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두 공기, 세 공기가 아닌 ‘한 공기의 사랑’이다. 철학자 강신주의 생각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낱말되는 시대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성찰한 책이 발간됐다. 철학자 강신주가 펴낸 ‘한 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은 철학과 삶을 연결하며 대중과 소통해온 결과물이다.

책은 EBS 강연 프로그램에서 16회에 걸쳐 방송된 ‘한 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과 동시 기획돼 출간됐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존재에게 있어 한 공기의 밥만 큼만 사랑해야 한다. 스스로 사랑하고 믿지만 두 공기, 세 공기의 밥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苦), 무아(無我), 정(情), 인연(因緣), 주인(主人), 애(愛), 생(生)을 키워드로 한 공기의 사랑과 아낌의 정신을 풀어낸다. 특히 이색적인 것은 김선우 시인의 시 8편으로 각 주제를 연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는 신타라와 나가르주나, 임제, 백장 등 불교 사유는 물론 동서양 주요 철학적 사유와 연계된다.

저자는 ‘한 공기의 사랑’은 타자의 고통에 민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누군가의 고통을 느꼈다면 두 공기나 세 공기부터는 타자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전제한다. ‘한 공기의 사랑’으로 압축되는 아낌의 지혜가 요구되는 이유다.

책 곳곳에 “시인의 감수성, 부처의 마음, 철학자의 지성이 총동원된 것”은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다시 말해 무소유와 보시의 정신, 연기의 지혜를 통해 자비의 감수성이 우리를 관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감성이나 지성의 변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EBS BOOKS·1만 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군산

배지영 지음

100년 이상의 건물과 마을이 옛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곳, 일제 수탈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바로 군산이다. 흔히 군산을 일컬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말한다. 근대문화의 도시이자 한편으로 철새들의 군무를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문지리 시리즈 ‘대한민국 도슨트’ 일곱 번째로 발행된 책은 ‘군산’이다. ‘서울을 떠나는 삶을 권하다’와 ‘우리, 독립정춘’의 저자 배지영이 군산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펼쳐낸다. 스무 살에 군산에 와서 쓴 해재 쫓고 있는 작가는 오래두고 기억해야 할 군산 땅과 사람들을 만났다.

1900년대 일본인이 닦은 도시는 ‘원도심’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일본인들의 요구로 113년 전 세운 ‘옛 군산세관’, 군산과 정읍에 가진 땅이 여의도 10배가 넘었던 구마모토 호화별장 ‘이영춘 가옥’도 이곳에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군산의 모습은 아니다. 만세운동을 벌였던 영명학교는 ‘군산 3·1 운동 100주년 기념관’으로, 100여 년 전 적산가옥은 일제 항거 역사를 소개하는 ‘군산 항쟁관’으로 변모돼 있다. 영국 ‘BBC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경이로운 순간’에 소개돼 세계인의 이목을 끈 것도 있다. 다희 안 11월 금강하굿둑을 물들이는 가장오리의 군무다. 뿐만 아니라 군산시와 고군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 방조제를 통해 더 가까워진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는 다도해의 비경으로 꼽힌다.

저자는 2013년 시간여행축제를 시작으로 군산은 역사 교육 현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제는 한 달을 살고 가는 여전한 관광도시로 자리잡았다고 부연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바로 군산을 일궈가는 밑바탕이라는 의미다. <21세기북스·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셸리 산문집

퍼시 비시 셸리 지음, 김석희 옮김

‘예언의 나팔이여! 오 서풍이여, 겨울이 오면 봄이 어찌 멀리 있었는가’

퍼시 비시 셸리는 바이런, 키츠와 더불어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의 시 ‘서풍의 노래’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셸리의 삶과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그의 사상적 배경과 문학적 바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문들을 번역한 ‘셸리 산문집’이 출간됐다.

‘서풍의 노래’ 마지막 시구를 인용한 부제 ‘예언의 나팔소리’는 셸리의 예언자적 풍모를 보여준다. 단순히 낭만주의의 서정만을 노래한 시인이 아니라 권위와 압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데 평생을 바친 사회개혁가로서의 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

옥스퍼드에서 퇴학당한 계기가 된 ‘무신론의 필연성’을 비롯해 셸리의 시학적 결정체인 동시에 낭만주의 문학론의 꽃으로 불리는 ‘시의 옹호’, 인류애와 세계시민 정신을 호소한 ‘박애주의자 협회 설립의 제안’ 등이 담겼다.

또 채식과 인간 문명을 성찰한 ‘자연식의 옹호’, 언론출판의 자유를 논하며 불의한 재판을 비판한 ‘엘리버러 경에게 보내는 편지’, 의회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민주적 공화제 수립을 주장하는 ‘살렘 공주의 죽음과 관련하여 인민들에게 보내는 글’, 그리스 정신의 위대성을 피력한 ‘아테네 사람들의 문학과 예술과 풍속에 관한 시론’, 사랑을 공감의 행위로 파악한 ‘사랑에 대하여’ 등도 실렸다.

아울러 부인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쓴 서문, 키츠, 바이런, 메리 셸리에게 보낸 편지 등도 눈길을 끈다.

<이른비·1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프리미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리미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